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4호 【루계 제25457호】 주체105(2016)년 11월 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하는 구분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구분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분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와 전투동원준비실태, 훈련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분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과 같은 복잡한 전투정황들과 조건들을 조성해놓고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전투정황을 신속히 분석판단하고 유리한 전투환경을 마련할줄 아는 능력을 키우며 싸움준비에서 미진된 문제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자나깨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구분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과 함께 훈련에서 주체성, 실용성, 과학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분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한것만큼 전투정치훈련과 부대지휘관리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전투진지들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위장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비준해준 표준병영설계대로 새로 꾸린 구분대 지휘부와 여러 중대들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에 들리시여 모포의 질도 가늠해보시고 난방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으며 세목장에 들리시여서는 수질상태와 물량도 료해하시고 군인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보람찬 군무생활을 할수 있게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추어놓은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콤퓨터자료전송체계를 세워준 결과 군인들이 매일 인민군신문을 정상적으로 보고 당의 목소리를 듣고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정치사상적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야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춘 팔방미인들로 키우자면 그들속에서 독서기풍을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중대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분대식당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린것만큼 겨울철난방보장을 잘하여 군인들이 뜨뜻한 곳에서 뜨끈한 식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고 일일창고, 콩창고, 가공실 등을 돌아보시면서는 콩농사도 그만하면 잘하였다고, 기초식품은 물론 각종 절임, 젓갈류들도 풍족하게 마련해놓았을뿐만아니라 가공시설들도 잘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그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풍농사, 온실농사, 축산을 비롯한 부업에 힘을 넣어 구분대를 잘사는 구분대, 부자구분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규모있게 일떠선 병영을 바라보시며 건물들의 외벽을 곰보미장으로 처리하니 보기 좋다고, 담쟁이까지 뻗어오르면 볼만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병영과 주둔지역의 산들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간직하고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춤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관하 구분대의 군인들은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김정은

위대성교양에서 중시한 문제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5대교양을 틀어쥐고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요구이다. 여기에서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하는것이 위대성교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에서는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실속있게 하며 온 나라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위대성교양에 힘을 넣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사상의 강자들로 키워가고있다.

거점꾸리기를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도당책임일군들은 도안의 혁명사적관,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교양실들과 연혁소개실들의 실태를 분석해보았다. 위대성교양거점들이 자기 면모를 원만히 갖추었다고는 볼수 없었다.

자기 고장, 자기 단위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사실자료와 사진문헌, 실물로 보여주는 거점들을 잘 꾸리는것이 위대성교양의 선차적고리라고 본 도당책임일군들은 도안의 교양거점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꾸리기로 하였다.

그 첫 대상이 바로 도혁명사적관이였다.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도혁명사적관개건과 그에 대한 참관조직만 잘하여도 위대성교양에서 큰 실효를 거둘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목적은 도혁명사적관개건을 계기로 온 도에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교양거점답게 잘 꾸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자는데 있었다.

선차적고리로

이렇게 되여 도혁명사적관개건은 올해 도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70일전투의 첫번째 목표로 설정되게 되였다.

도당위원회는 선전선동부 과장이상 일군들에게 한개 호실씩 맡겨주고 경쟁의 방법으로 혁명사적관개건공사를 힘있게 내밀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개건전투장에 나가 사적자료들과 생활력자료들을 심감있게 전시하여 위대성교양의 실효를 더욱 높이기 위한 문제,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문제 등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함남땅 인민들의 충정심이 높이 발휘되고 도급기관들과 시, 군당조직들이 발동된 가운데 도혁명사적관개건공사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올해에 도혁명사적관만이 아니라 신포시, 북청군, 홍원군,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있는 혁명사적관들도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도당위원회는 위대성교양거점을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본보기창조와 일반화를 옳게 활용해나갔다.

우선 무분별로 본보기단위를 정하고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농업부문에서는 덕성사과농장과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교육과학 및 보건부문에서는 함흥의학대학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이 본보기단위로 선정되였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본보기단위들의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이였다.

교양거점꾸리기에서 기준을 명백히 세워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단위의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기준으로 삼고 일군들이 그 단위들에 찾아가 배우도록 하였으며 도당일군들이 정상적으로 나가보고 편향들을 바로잡아주도록 하였다.

본보기단위의 위대성교양거점들이 다 꾸려진 다음에는 보여주기를 진행하여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였다.

시, 군들사이,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도안의 교양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위대성교양을 강화할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선전선동력량을 보강하여

당선전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대성교양에 직극 인입하여 선전선동력량을 강화한것이 도당위원회가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이다.

도당위원회는 중요명절과 계기마다 접견자, 령도업적단위일군들의 강연을 정상화함으로써 위대성교양의 실효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올해 광명성절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직접 몸가까이 만나뵈오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함흥수리동력대학 초급당위원장, 함흥모방직공장 지배인을 준비시켜 순회강연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함흥시당위원회와 함주군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찾으시였던 함흥편직공장과 흥남구두공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일군들을 준비시켜 강연을 진행하였다.

위대성강연의 실효는 참으로 컸다.

출판물보급원들도 위대성교양에 직극 인입하였다.

도당위원회는 전국출판물보급원들의 도서해설선전경연에서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함흥시 동흥산구역출판물보급소, 흥덕구역출판물보급소를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도서해설선전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강화하였다.

도안의 출판물보급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장편기행서사시 《사향가》, 도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성악, 기악작품들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속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고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돌림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는 피해복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장들에서 도서해설선전대를 통한 위대성교양의 도수를 한층 높여나갔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보낸 물동상선전투로 날마다 치렬한 백열전이 벌어지는 홍남항에 달려나간 홍덕구역과 해안구역의 출판물보급원들은 도서 《위대한 한생》, 당보에 실린 정론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에 대한 해설선전을 진행하였다. 도서해설선전은 군인들과 로동계급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북부전선에 보낸 물동상선작업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여 10월말까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최근 도안의 여러 단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과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이룩하고있는 전례없는 성과들은 바로 도당위원회가 힘을 넣고있는 위대성교양의 결과라고도 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큰 힘을 넣을 때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의 대부대가 자라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이곳 도당위원회사업은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실천으로 애국심을 키워주어

화평군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화평군당위원회에서는 200일전투결의목표에 직명도로화장공사를 반영하였다.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이 공사는 어느때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방대한 공사였다. 10여리에 달하는 명길의 폭을 넓히는 6만 7 000여㎥의 절토 및 성토공사, 7만 5 000여㎥의 암반굴착, 1만 수천㎥의 옹벽공사와 1만여㎥의 석축공사를 하여야 하였다. 물전기재가 부족한 조건에서 많은 땀의 돌파 모래, 세멘트를 50여리나 되는 곳에서 날라와야 하였으며 지어는 물까지도 수천m나 되는 곳에서 길어와야 하였다.

하지만 군당위원회는 이 방대한 전투목표를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직극 발동하여 한달만에 끝낼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는 만경대혁명일가분들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직명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더욱 깊이 체득시키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최대로 분출시켜 200일전투의 다른 목표들도 련이어 점령하려는 군당위원회의 의도가 비껴있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끓어번지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급기관일군들로 도로공사지휘부를 조직하고 장마철전으로 도로공사를 끝낼 단계별, 일정별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웠으며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심을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선동공세를 들이대였다.

군당책임일군은 방대한 공사를 앞두고 다시한번 직명에로의 현지답사에 올랐다. 배낭을 짜아내고 돌을 쌓아야 할 곳들을 돌아보느라니 생각보다 더 아름차다는 생각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하였다. 직명정점에 올라 직명은 우리 만경대가문의 3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를 이어 걸은 뜻깊은 곳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새겨진 명제비를 마주하고보니 이 공사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졌고 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분출시킨다면 공사를 얼마든지 제기일내에 반드시 끝낼수 있다는 신심과 배심이 생겼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군안의 모든 선전선동력량을 전투현장에 집중시키는것과 함께 그 실효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군기동예술선동대의 선동내용에 직명에 새겨진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헌신의 세계를 감동깊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모든 교양사업의 내용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일관시켰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구현해나가는데서 일군들의 이신작칙문제를 중시하였다.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도로공사구간을 분담해줄 때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제일 거리가 먼 어렵고 힘든 직명정점구간을 군당위원회일군들이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을 내려가며 순차적으로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이 공사과제를 맡도록 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직명도로공사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였다.

제일 힘든 공사구간과 많은 작업량을 맡아 불전기재가 없으면 손달구지로 돌동을 나르고 폭약이 없으면 정대와 함마로 암반을 까내며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은 곧 실천이며 실천은 곧 애국심의 표현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모든것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대중의 애국열의를 충폭발시켜 직명도로화장공사를 단 한달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 군당위원회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최 영 길

억센 신념을 새겨준 실효모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학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나가는데서 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혁신해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화학직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이 그 실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초 한 분석공의 물분석결과를 놓고 초급당위원장 리영호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청정계통, 려과계통 등 여러 공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정해진 기준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더욱 심각한것은 이것을 대하는 그의 만성적인 태도였다. 오랜 경험을 내대며 그쯤한것은 허용할수 있는것으로 여기는것은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였다.

물을 제꼿이 정화하며 분석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교시에 비추어볼 때 분석공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틈도 없이 결사관철하려는 철석의 신념이 체질화되지 못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초급당일군은 기업소에서 조직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 대한 관람과 실효모임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결사관철의 신념과 의지를 벼려여주는 계기로 되게 할것을 결심하였다.

여기에 선동원들을 참가시켰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때문이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실효모임에서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데도 큰 품을 들이였다. 가극을 관람한 선동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음 직장에서 나타나고있는 편향적인 문제들을 알려주어 토론준비를 현실과 결부하여 심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련속공정으로 되여있는 단위의 특성에 맞게 당세포별로 실효모임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러한 준비밑에 진행된 실효모임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길지 않은 모임이였지만 참가자들에게 혁명적신념을 더욱 억세게 새겨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온갖 회유와 야만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항일혁명투사 최희숙동지의 모습과 단두대에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는 혁명가의 목소리가 직장안의 모든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새겨졌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종업원들의 일손에서 불이 일었다. 종전에는 하루동안에 진행되던 기계적려과장치의 려과재료분쇄작업을 이들은 단 3시간만에 해내였으며 자체로 응결제를 제조하여 물생산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는 성과도 거두게 되였다.

단위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찾아쥐고 진행한 모임의 실효는 이렇게 컸다.

본사기자 김 혁 철

계급교양의 실효를 높여

신천군 건산리당위원회에서

다른 사상교양사업과 마찬가지로 계급교양도 생산에서 앙양이 일어날 때 실효를 거두었다고 말할수 있다.

신천군 건산리당위원회가 농장원대중의 가슴마다에 반제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계급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그것이 그대로 당면한 영농실적으로 이어지게 한 사실이 좋은 실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을걷이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이였다.

제8작업반에 나갔던 리당위원장 양종협동무는 선동원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게 되였다.

선동원들은 월사업계획에 따라 포전들에서 계급교양자료를 가지고 선동활동을 진행하고있었다. 구두선동, 정황선동 등으로 활기있게 진행되는 그들의 계급교양은 농장원대중의 심장을 복수의 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하지만 일부 선동원들의 선동활동에는 부족점도 있었다. 계급교양자료가 참신하지 못하여 농장원들에게 주는 감흥이 별로 크지 못하였던것이다.

리당위원장이 선동의 실효를 높이지 못한 한 선동원을 만나 알아보니 자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새로운 교양자료를 찾아 선동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이것을 통하여 리당위원장은 생각되는바가 있었다.

(계급교양을 한번 해도 대중의 심장이 복수의 피로 펄펄 끓게 하자!)

리당일군은 계급교양의 실효를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우선 모든 선동원들에게 과업을 주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군에서 감행된 미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특히 최근에 리에서 발굴된 실물들을 통하여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자료를 보다 충분히 마련할데 대한 과업이였다.

이에 기초하여 선동원의 날에 가을걷이전투현장에서 선동경연을 조직하였다.

선동경연은 그야말로 열띠게 진행되였다. 틈틈이 준비한 참신한 계급교양자료를 가지고 진행한 선동경연을 통하여 선동원들은 많은것을 깨닫게 되였다.

선동경연이 끝나자 모든 선동원들은 자기 단위의 전투장들에 달려나갔다. 그들은 포전마다에서 생동한 계급교양자료들로 격조높은 선동을 진행하여 농장원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그 이후 가을걷이실적이 최대로 높아졌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실천을 통해 계급교양의 실효는 실적의 높이에서 나타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영농전투가 긴장할수록 계급교양사업을 더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희광협동무를 비롯한 리당일군들은 농장원대중이 마음의 항개를 늦춤이 없이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였다.

쌀이 많아야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농장원들은 백년숙적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는 심정으로 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내고 그 기세로 남알탈기전투에서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갔다. 하여 농장에서는 남알탈기를 계획했던 날자보다 한주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강화하고있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항일혁명선렬들과 전화의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펜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페하

나는 캄보쟈왕국독립 63돐에 즈음하여 국왕폐하와 친근한 캄보쟈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존경하는 국왕폐하의 령도밑에 캄보쟈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력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국왕폐하가 건강하고 행복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1월 8일 평 양

마나과

니까라과공화국 대통령

다니엘 오르떼가 싸베드라각하

나는 당신이 니까라과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1월 8일 평 양

옥천골의 낚시터가 전하는 사연

언제인가 미국 《워싱톤 타임스》기자단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질문을 올린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석께서는 80세에 50대의 건강을 지니셨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을 때마다 자신께서는 락천적으로 사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대답하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들이 일제히 울리는 박수소리, 박수소리…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세상에서 제일가는 락천가이시였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비관을 모르시고 우리 인민을 혁명적락관주의의 체현자, 강자로 키우신 우리 수령님의 락천성의 근본원천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락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락천성은 가장 준엄하고 어려울때일수록 그 진가를 나타낸다.

주체39(1950)년 10월 중순 어느날 이른아침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 북창군 옥천기차굴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평양지구방어전투와 인민군주력부대들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직접 지휘하고계시였다.

지척에서 울리는 적들의 포성을 들으며 일군들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작전실에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태연하게 산책을 하고계시였다.

깊은 사색속에 천천히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따르는 일군에게 어기 어디 낚시질할만 한데가 있겠는데 거기에 나가보자고 하시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인지라 일군은 물론 주변에 있던 군인들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 적들이 밀려드니 겁이 나는가고 물으시였다.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포성이 울리는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 후퇴를 통해서 시간을 쟁취하고 힘을 축적하여 다시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위력한 총반격을 시작할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선언하시였다.

어지럽게 울리는 적들의 포소리를 짓누르며 울려퍼지는 그 우렁우렁한 음성은 일군들의 가슴속에 갈마들고있던 우려와 근심을 말끔히 가셔버렸다.

강기슭으로 내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위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니 먼저 주변의 경치를 부감하시였다.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려 한가로이 헤염치고있는 물오리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돌러보시며 우리 나라 산천은 그 어디에 가나 아름답소, 정말 금수강산이요라고 하시며 감개무량해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심각한 안색을 지으시며 격노하시여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금 미국놈들이 짓어삼키겠다고 덤벼들고있소. 그러나 놈들은 아무리 발광을 해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소. 우리는 미국놈들을 용서치 않을것이요.

그 순간 위대한 수령님의 안광에서 섬광이 번쩍이였다. 강철의 령장께서 지니신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강변에 차넘치고있었다.

이윽고 낚시를 드리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줄곧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구상으로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백절불굴의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락관주의만 과연 어떤것인가를 새기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돌이켜보면 전선형편이 그처럼 위급한 때 지척에서 울리는 포성을 들으며 태연자약하게 낚시대를 드리우고 원쑤들을 격멸할 작전을 구상한 최고사령관이 그 어느 전쟁사에 있었는가.

그때의 형세가 오죽 급하였으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인들마저 조선의 김일성장군이 또다시 백두산에서 빨찌산을 할수밖에 없을것이라는 우려까지 하였다고 한다.

옥천골에서의 낚시질이 있은 때로부터 며칠후 비장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한 외국인의 심정에 대하여 그 나라의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썼다.

《순간 그는 경탄의 정을 느꼈다. 조선인민의 수령의 얼굴표정은 혁명가의 강의성과 락천성을 보여주고있었다. … 조선인민과 군대가 물러앉지도 않았고 머구나 굴복하지도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

세계를 경탄시킨 우리 수령님의 락천성,

그 근본원천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할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필승의 신념이였음을 옥천혁명사적지의 사연깊은 낚시터는 오늘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한 영 민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여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자

빈틈없는 작전이 성과를 담보한다

배천군에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결사전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을걷이를 지난 시기보다 열흘, 낟알털기는 보름이상 앞당겨 끝내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는데서 농사결속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명심하고 떨쳐나선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도록 작전하였다. 즉 립체전을 벌리기로 하였다.

립체전을 벌리자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일군들은 최근 몇해동안 가을걷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무엇인가, 기상기후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농장들의 실태를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올해 가을걷이에서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를 포착하게 되였다.

우선 적기선정을 바로하는것이였다. 사실 군에서는 논벼생육후반기의 영양을 좋게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는 방향에서 비료주기를 하였었다. 그리하여 벼가을을 앞둔 시기에도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천알질량이 계속 오르고있었다.

따라서 벼가을을 너무 일찍 시작하면 정보당 수확고에서 많은 손해를 볼수 있고 이삭목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베게 되므로 낟알털기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또 너무 늦잡으면 가을과 운반을 하면서 낟알허실을 가져올수 있었다.

군일군들은 이 문제를 중시하고 힘을 넣었다.

금성협동농장의 가을걷이일정계획이 주목되였다. 이 농장에서는 올해 중간올콩, 중간콩을 배합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문제로 된것은 가을을 앞당겨야 할 포전들이 있는가 하면 계획보다 늦게 하지 않으면 안될 포전들도 있는것이였다. 즉 지력이 높지 못한 포전의 논벼는 빨리 여물어 가을을 해야 하였지만 지력이 높은 포전의 논벼는 천알질량이 계속 오르고있었다.

현실은 벼가을계획을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군일군들은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 힘을 집중하여야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즉시 이 농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포전의 특성에 맞게 벼가을을 적기에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이때 군일군들은 지력이 낮은 포전의 벼는 대체로 빨리 마르므로 가을하는족족 제때에 실어들여 털어야 낟알허실을 막을수 있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적기선정을 과학적으로 하고 가을걷이를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지력이 높고 여러가지 비료의 영향으로 벼가 계속 여물고있는 포전들은 가을걷이가 늦어졌지만 천알질량이 계속 늘어난 결과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었다. 한편 적기를 바로 정하고 가을한 포전의 벼는 벼알이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져 낟알의 허실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군일군들은 포전도로보수에도 관심을 돌리였다. 아무리 운반수단이 잘 준비되였다고 해도 도로상태가 그에 따라서지 못하면 운반실적을 올릴수 없었다. 그들은 작업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먼저 포전도로들을 돌아보고 작업량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 보수를 농장관리위원장들이 틀어쥐고 내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포전도로수리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을 세우고 적극 내밀어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다음으로 일군들이 힘을 넣은것은 이동식소형탈곡기의 리용이였다.

당의 요구대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운반이다. 통가리를 쳤다가 그것을 다시 트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로 실어나르는데만도 많은 품과 시간이 걸렸다. 이것만 해결되여도 립체전을 벌리는데서 큰 문제가 해결될수 있었다.

일군들은 즉시 이동식소형탈곡기를 가지고 많은 면적의 포전에 대한 낟알털기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가을걷이전으로 1천여대의 이동식소형탈곡기를 마련할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

그 실현을 위해 군일군들은 군농기계작업소와 농장기계화작업반들의 력량을 총동원하는데 힘을 넣었다.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력량을 꾸리고 짧은 기간에 이동식소형탈곡기를 만들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1 700여대의 이동식소형탈곡기들이 제작되여 그후 온을 내게 되였다.

결과 낟알털기를 지난 시기보다 15일이상 앞당겨 끝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사업의 중심고리를 바로 찾고 력량을 집중하면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일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함주군에서

함주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15일정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이들이 올해농사결속전투에서 거둔 이 성과는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가꿔온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나라의 쌀독에 채워넣는가 못 채워넣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모두가 가을철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맞고보내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낟알털기전투를 작전하고 지휘하면서 군일군들의 머리속에서 순간도 떠날줄 모르는 생각이였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귀중한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일데 대한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낟알털기전투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여기에로 지향시켜나갔다.

제일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것은 낟알털기속도를 최대로 높이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낟알털기가 한알이나 걸리다보니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낟알허실이 많아지는것은 물론 가을갈이와 모판자재확보, 유기질비료생산을 비롯한 다음해농사차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군 하였다. 결정적으로 낟알털기기간을 줄여야 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가을철에 비가 때없이 자주 내리는것이였다. 비록 한번에 내리는 비량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논판을 질어지게 하여 트락또르나 부림소들이 움직이는데 부정적영향을 미치였다. 잘못하다가는 벼단운반을 미처 따라세우지 못하여 낟알털기속도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하루가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질풍같이 내달려야 할 책임적인 시기라는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금 흐르는 분분초초는 곧 쌀이나 같다. 시간을 끄는것만큼, 벼단실어들이기를 늦추는것만큼 품을 들여 애써 지은 곡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방도는 오직 하나 논에 있는 벼단들을 운반수단들이 다니기 쉬운 포전도로에까지 내다놓는것이였다. 말이 쉽지 이것을 수행하자면 힘치 않았다. 제일 절린 문제는 로력이 긴장한것이였다. 군일군들은 군안의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가두녀맹원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로 하고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갔다.

대오의 기수가 되여 힘차게 내달리는 그들의 뒤를 따라 군안의 공장, 기업소의 종업원들과 가두녀맹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벼단운반을 낟알털기에 확고히 앞세울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군일군들은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낟알털기속도를 보장할수 있도록 트락또르들의 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이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트락또르가 벼단을 싣기 위해 포전에 나갈 때 련결차를 두대씩 끌고나가도록 작업조직을 하였다. 트락또르가 벼단을 실은 련결차를 끌고 탈곡장에 갔다오는 사이면 남겨두었던 다른 련결차에 벼단을 가득 실을수 있었다. 그러면 트락또르들이 포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련속 벼단을 실어나르게 할수 있었다. 이 방법을 도입한 결과 농장들에서는 벼단운반속도를 1, 7배이상 높일수 있었다.

현실은 일군들이 당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와 능숙한 조직적수완, 혁신적인 일본새로 일해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중시한 교대전 기대정비

운전군 보석협동농장에서

지난 어느날이였다. 작업반별낟알털기실적을 대비해보던 운전군 보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명실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도 상당히 앙양되였고 조건도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작업반별낟알털기실적은 서로 달랐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초급일군들을 만나 그 대책을 토의하기 위해 탈곡장으로 나가던 관리위원장은 작업반들을 돌아보는 리당위원장 장명호동무와 마주쳤다.

관리위원장의 속생각을 들어다본듯 리당위원장은 제7작업반에서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 작업반에서는 낟알털기에서 농장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합리적인 로력배치와 교대별작업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특히 작업조들의 교대전 탈곡기정비에 큰 힘을 넣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는것은 중시할만 한 일이다. 작업반에서는 작업이 끝나기 20분전에 기대정비를 맡김히 한 후 다음조에 넘겨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처럼 진행하고있다. 그것은 탈곡기의 상태는 교대하기전 작업조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것만큼 기대정비를 잘하여 다음조에 넘겨주어야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이였다.

이것이 낟알털기실적을 높인 비결이였다.

이것은 교대전 기대정비가 탈곡기의 만가동보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여기에 낟알털기를 다그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즉시 모든 작업반들에 이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작업반들을 맡고나간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면서 걸린 문제들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이 과정에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교대전 기대정비를 어길수 없는 중요한 공정으로 여기고 집행해나가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특히 기대공들의 책임성이 더욱 높아졌다.

설비점검을 한번 해도 미흡한데가 있을세라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깨끗한 량심을 바쳐갔다.

모든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안고 떨쳐나선 결과 낟알털기를 지난해보다 보름이상이나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박 영 진

큰 은을 낸 자연흐름식물길

철원군에서

철원군에 가면 제힘으로 건설한 자연흐름식물길을 볼수 있다. 이것이 올해농사에서 큰 은을 냈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군에서 물문제가 론의된것은 지난 시기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물을 제대로 대지 못했던 논을 부득불 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전기를 절약하는것도,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것도 당정책적요구이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서나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하였다. 여기에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기본열쇠가 있었다.

자연흐름식물길건설문제가 상정되였을 때 처음 제기된 방안은 어느 한 산에 저수지를 만들고 퍼올린 물을 논으로 내리먹구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문제로 된것은 물을 끌어올리는데 적지 않은 전력이 소비되는것이였다.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논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농사를 안전하게 짓게 하자.

군책임일군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한가지 생각이 고개쳤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강원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현지를 여러차례 답사하며 문제해결의 묘술을 찾아나갔다. 그러던중 덧없이 흐르던 마방천을 막아 저수지를 형성하는 경우 얼마든지 물이 저절로 논에 흘러들게 할수 있다는 착상이 떠올랐다. 한것은 저수지의 물면과 그와 접한 산뒤의 표고차를 리용하면 자연적으로 물을 보낼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가능한 일이였다.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혔던 문도 열리기마련이였다.

그후 군적으로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도적으로 진행되는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이 군의 로력을 뚝 떼여 공사에 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도 삽차와 화물자동차 그리고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이것은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런 속에 취수탑의 수문도 전기를 쓰지 않고 어닫게 할수 있게 되였다.

결과 마방천의 물목에 제방을 쌓아 자연흐름식물길을 만드는 전투가 올해 보내기전투를 앞두고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자연흐름식물길건설로 얻은 경제적실리는 실로 컸다.

마방, 립석, 밀암 등 여러 지구 수백정보의 논들에 물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었다. 며우기 근 400정보에 달하는 밭들을 논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된것은 큰 성과였다. 이것은 알곡증산의 방도가 자연흐름식물길에 있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시기 물보장에 사용하던 3개의 양수장이 없어짐으로써 순시로 230㎾의 전력을 전혀 쓰지 않게 되였고 그만큼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실리는 결코 헐하게 얻어진것이 아니다.

군자체로 근 200m의 물길굴을, 암질이 굳은 천연암벽을 뚫어야 하는 악조건에서 마련된것이다. 그것도 이런 일을 해본 경험도 없는 형편에서 해내였다.

그 나날에 있은 감동적인 사실들을 어찌 다 적을수 있으랴.

지난 시기 엄두도 못 내던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을 통하여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절실히 체험은것이 있다.

논농사는 결코 하늘농사가 아니라 제힘으로 자연을 길들일 때 성과가 크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훈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우리 작업반장

황주군 흑교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군적으로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작업반에서는 지난해에 자체의 힘으로 종전보다 1, 5배나 되는 차고를 번듯하게 일떠세워 자동차와 트락또르들의 관리와 수리정비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올해에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힘찬 투쟁속에서 보름동안에 수백㎡의 농기계보관고를 새로 건설함으로써 농기계보관관리를 잘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 성과속에는 몇해전부터 작업반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김정성동무의 남모르는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그는 모든 작업반원들을 참된 기계화초병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늘 사색과 연구를 깊이 하였다.

기계화초병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높은 기술기능수준과 함께 농기계를 자기의 살붙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심이 뜨겁게 불타야 한다는것을 작업반원들에게 그는 늘 강조하면서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갔다.

그 나날 작업반원들은 작업반장의 일솜씨를 그대로 닮아갔다. 불과 몇해사이에 그 어떤 과업도 언제나 어김없이 제때에 수행하는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난 작업반은 농장의 자랑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하기에 작업반원들은 누구나 김정성동무를 두고 기계화작업반의 참된 주인, 일욕심이 많고 내밀성이 강한 손락이 센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비상한 창조력과 실천력을 지닌 당정책결사관철의 1번수가 되자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 평안북도먼거리려객자동차사업소는 그리 크지도 않고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단위도 아니다. 고난의 후과로 거의 주저앉다싶이 하였던 단위이다. 그러하던 사업소가 불과 몇해사이에 자체로 일떠서 기업경영관리의 정보화, 콤퓨터화를 실현하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철쭌 넘쳐 수행하는 단위로,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단위로 되였다. 뿐만아니라 축산과 양어, 버섯과 온실남새재배, 자연에네르기리용을 비롯한 당정책관철에서도 앞장섬으로써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70일전투에 이은 200일전투에서 이 단위가 거두고있는 실적도 뚜렷하다.

사업소의 현실은 인민경제 한개 부문,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어떤 비상한 창조력과 실천력을 지닐 때 만리마시대가 바라는 당정책관철의 1번수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귀중한 대답을 주고있다.

지지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어느 단위에나 기술발전을 위한 자체의 목표가 있다. 그런데 그 높이와 수행속도는 꼭 같지 않다.

이것이 매개 단위에 갖추어져있는 기술력량의 존비정도로부터 나타나는 차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만리마속도로 내달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그 근본원인이 대오의 앞장에 서야 할 일군들의 실력의 차이라는데 가장 큰 력점을 찍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년간 사업소가 거둔 과학기술성과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소에는 기업경영관리의 정보화, 콤퓨터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있다. 여러가지 계획작성, 수송조직 및 지휘, 기술발전, 로동행정, 재정활동 등 모든 사업들을 사업소구내에 구축된 콤퓨터망을 통하여 진행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이 사실자체는 그리 놀라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매일과 같이 사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작은 단위에 왔다가 실로 큰것을 배우고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것은 기업관리의 정보화의 폭이 매우 넓고 심도 또한 깊기때문이다.

사업소에서 여러해전부터 개발하여 도입한 운행현시프로그람을 놓고보자. 이 프로그람은 먼거리려객수송길에 오른 뻐스들의 운행과정을 실시간적으로 장악하여 콤퓨터화면에 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말하여 앉은자리에서 콤퓨터를 통해 운행중에 있는 매 려객뻐스들의 현위치와 단위시간동안에 달린 거리,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을 한눈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사업소에서는 려객운수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즉시에 대책을 세울수 있는 이러한 운행현시프로그람과 함께 연유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고 수송조직과 지휘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 수송지휘업무프로그람도 리용하고있다.

지금 이 경험을 배우려고 많은 단위 일군들이 찾아오고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의의를 잘 알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개발한 기술집단의 1번수가 사업소지배인 리은철동무라는 사실속에는 보다 주목되는 문제점이 있다.

취재를 통해 우리는 운행현시프로그람과 수송지휘업무프로그람의 개발과 도입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이 프로그람들을 착상한 사람도 리은철동무였고 평안북도전자업무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함께 그 개발의 앞장에 선 사람도 다름아닌 그였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몇몇 기술자들의 발기를 지지해주고 적극 떠밀어준것이 아니라 기술과제들을 직접 제기하고 그 수행의 앞장에 선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실 사업소의 수십대 운수기재들은 넓은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것으로 하여 프로그람을 통해 그 움직임을 정확히 장악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먼거리려객운수에서는 예측할수 없는 객관적요인들이 수시로 작용되는것으로 하여 수송조직과 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많은 난문제를 안고있었다.

하지만 리은철지배인은 먼거리려객운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객관적요소들간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오랜 기간에 걸치는 풍부한 기업관리경험을 100% 자료기지화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련관부문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끝끝내 여러 프로그람들을 개발도입하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이 프로그람들은 한해에 두차례씩 부단히 갱신되고있는데 그 기능이 해마다 개선되고있다고 한다.

사업소에는 방대한 량의 과학기술자료기지가 구축되여있다. 현만한 생산단위나 과학연구기관들과 어깨를 겨루어도 결코 짝지지 않는다는 이 자료기지구축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사업소일군들이다. 때로는 국가망을 통해, 때로는 평양출장길에서 시공간적제한이 없이 진행되는 자료기지구축 및 갱신사업은 과학기술력을 추진력으로 하여 일터를 전진시키는데서 실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사업소일군들은 문서와 동화상 등 여러 형식으로 된 이 자료기지에 의거하여 근 100대에 달하는 화물자동차와 뻐스, 승용차들의 부속품가공과 수리는 물론이고 축산과 양어, 버섯과 온실남새재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 등 기업관리와 후방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모든 종업원들이 시대의 요구를 자각할 때 일터의 힘은 더 커진다. 올해 70일전투기간 사업소에서는 도로상태에 따르는 운수기재들의 운행상안전을 보장하여주는 속도경보장치가 개발되여 모든 뻐스들에 도입되였다. 200일전투기간에는 운수기재들의 달림거리를 정확히 측정하여 액정표시판에 현시하는 장치를 국산화하여 원가를 절반이상 줄이는 성과도 이룩되였다. 이 장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 설정항목들을 변경시킬수 있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더 크다.

크지 않은 이곳 사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최근 몇해동안에 수여받은 발명, 창의고안증서만 해도 십여개나 된다. 그 기술혁신의 앞장에 바로 리은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서있었다.

자기 식의 창조에 발전의 지름길이 있다

모방은 창조가 아니다. 일터의 진정한 발전은 그 누군가가 걸은 길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지름길을 개척할 때 이룩되게 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축구경기장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부지에 4동의 사무실, 휴계실, 탁구장, 수리기지건물은 물론이고 여러개의 차고들과 양어장, 축사, 버섯재배장, 수경온실 그리고 태양 및 풍력발전소까지 있다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뜻 믿으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이 단위를 돌아본 많은 사람들은 좁은 부지를 ㎡로가 아니라 ㎡로 리용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고있는 현실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

특색있게 꾸려진 양어장과 버섯재배장, 수경온실을 놓고보자. 사업소정문으로 처음 들어서는 사람들은 이곳 종업원들이나 일군들의 안내가 없이는 양어장과 버섯재배장을 쉽게 찾을수 없다. 사업소의 실태에서 양어장과 버섯재배장이 따로 위치할만 한 부지가 없는것이 너무도 명백하기때문이다.

참관자들은 사무실들이 자리잡고있는 2층짜리 청사의 1층복도를 지나면서 바로 자기들의 발밑에 양어장과 버섯재배장이 자리잡고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고있다. 말하자면 건물의 지하에서 물고기도 기르고 버섯도 재배하고있는것이다. 취재과정에 이것을 직접 목격한 우리의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이곳 종업원들이 지랑담아 부르는 지하양어장에서는 5 000여마리의 실한 룡정어들이 자라고있는데 천정에는 자연에네르기를 원천으로 하는 조명등들까지 설치되여있어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2층짜리 사무실건물과 맞은편 2층짜리 수리기지의 옥상에는 수경온실들이 자리잡고있다.

이러한 양어장과 버섯재배장, 수경온실들은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리은철지배인이 사업소의 여러 건물들을 자기가 직접 새롭게 설계하면서 설계도면에 반영한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손바닥만 한 부지에서 양어는 어떻게 하고 버섯재배장은 또 어디에 꾸리겠는가 하는것이 대다수 종업원들의 의견이였다. 하지만 당의 령도밑에 온 나라 곳곳에서 양어와 버섯재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소식을 당보와 텔레비존을 통해 대할 때마다 사업소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당정책은 조건이 좋으면 관철하고 조건이 나쁘면 관철하지 않아도 되며 또 큰 단위만 하고 우리 사업소처럼 작은 단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다. 우리 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관점만 확고하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수 있다.

이렇게 되여 종전의 낡은 건물들을 통채로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지하에는 양어장과 버섯재배장이, 옥상에는 수경온실들이 들어앉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사업소에서는 건물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적은 투자로 큰 보온효과를 얻을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겨울철에 보이라에서 리용하는 석탄을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자기 식으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길에 이렇듯 대담하게 들어서는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들어선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며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더 빨리 비약하는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보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위한 시설들을 꾸려놓는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무단히 새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것이다.

두동의 건물들의 옥상에 설치되여있는 온실들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처음 사업소에서는 옥상에 일정한 량의 흙을 올려놓고 그것을 리용하여 온실남새재배를 하였다. 하지만 남새수확량은 보잘것 없었고 결국 종업원 한사람당 차례지는 몫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은 겉치레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와 다름이 없었다. 일군들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료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사업소실정에 꼭 맞는 온실남새재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에 어디서나 쉽게 얻을수 있는 한개의 길이가 5m인 100여개의 수지판들을 온실들에 수직방향으로 5줄, 수평방향으로 6줄씩 배렬하였다. 그리고 수지판들의 량쪽 아구리를 밀봉한 다음 판들에 자그마한 구멍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고 키기에 여러가지 남새모들을 박아넣어 재배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남새모들은 흙이 아니라 크기가 아이들의 주먹보다 작은 혜면속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데 방울식관수체계까지 도입됨으로써 영양액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흡수할수 있게 되였다. 이로 하여 온실남새재배에서 물이 종전과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절약되였고 ㎡로가 아니라 ㎡로 리용되는 온실에서의 수확량은 그것에 비해 무려 5배로 껑충 뛰여올랐다.

사업소일군들은 체적이 수십㎥나 되는 탕크도 3개나 사업소구내에 설치하고 비물을 잠아 양어와 온실남새재배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종전에 있던 축사도 대담하게 허물고 돼지와 닭을 동시에 기를수 있는 새로운 축사를 건설함으로써 축산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 *

이 단위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것이 있다.

오늘날 일군들이 발휘해야 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은 곧 비상한 창조정신이며 일군들의 실력은 곧 기발한 착상력, 창조력이라는것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근로자들이 과학기술룡마의 기수가 되기 위한 사업에서도, 자기 식으로 무단히 새것을 창조하며 당정책관철에서 앞선 단위가 되기 위한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일군의 기관차가 되여야 할 일군의 역할이다.

비상한 창조력과 실천력을 지닌 당정책관철의 1번수가 되자!

격동하는 만리마시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홍 성

인민군대의 모범을 본받아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련일 높은 실적 기록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새 살림집들의 완공포성이 련이어 울리고 도로, 제방들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뻗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동해의 날바다에서도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당정책결사관철의 함성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최근 며칠동안 1만 수천t에 달하는 도루메기를 잡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만t의 물고기를 더 잡고 년간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지금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수산성아래 각지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지난 10월말부터 도루메기잡이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가공모선들이 신속히 어장을 차지하고 수백척에 달하는 고기배들이 중심어장에서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어로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이상의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이 성과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수산성 일군들과 성아래 각지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혁명적열정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산성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을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도루메기잡이전투를 위한 사전조직사업을 잘하였다. 연유보장과 배수리, 어구준비와 함께 중심어장에서의 집단적인 어로전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특히 10월초에 수십명에 달하는 성일군들이 각지 수산사업소들에 달려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즉시 대책을 따라세웠으며 10월말부터는 고기배들마다에 올라 어로공들과 함께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고있다.

성의 당, 행정책임일군들도 직접 집중어로전투지휘가 벌어지는 수산성도루메기전투현장지휘부에 위치를 정하고 화선지휘관이 되여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고있는 속에 일정별 목표수행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당정책관철에서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혁명적열의가 양화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이들은 최근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서라도 기어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하고야말 결사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나운 풍랑을 뚫고 어로전투를 중단없이 벌려나가고있다. 하여 이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연유 1t으로 10t의 물고기를 잡을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를 높이 받들고 기망당 최고 20t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격전의 하루하루를 이어가고있다.

김책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들은 올해전투계획수행에서 거둘수 있는 물고기잡이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벌려 기망당 물고기잡이실적을 높이고있다.

원산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동해의 날바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이들은 과학적인 생태조사에 따르는 어장선택과 생산통보분석에 기초한 어황예측과 같은 앞선 물고기잡이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연유 1t당 물고기잡이실적과 기망당 물고기잡이실적을 계속 끌어올리고있다.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고기배들의 정비와 어구준비를 앞세운 속에 도루메기잡이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돌격정로를 따라 맹렬히 공격하는 전투함선의 용사들마냥 다른 수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앞선 단위들의 뒤를 따르고있다.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산성 일군들과 여러 도수산관리국 일군들은 지휘선마다에서 모든 고기배들이 더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투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총정의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수산성 일군들과 각지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오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김일성상수상자,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리종오동지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주체105(2016)년 11월 8일 6시 50분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리종오동지는 한생을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충실성을 간직하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수많은 명곡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사상사업과 주체음악예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재능있는 창작가이다.

주체32(1943)년 11월 7일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태여난 리종오동지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유능한 지휘자, 작곡가로 자라나 우리 당의 음악정치를 명곡창작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왔다.

동지는 오랜 기간 음악예술부문에서 사업하면서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송가들과 대중가요, 경음악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주체음악예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는데 이바지하였다.

동지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당의 음악예술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리종오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11월 8일

《녀맹》호포 증정식 진행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마련한 《녀맹》호포 증정식이 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증정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증정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인민무력성, 녀맹, 관계부문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녀맹원들이 증정식에 참가하였다.

증정식을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를 맞으며 마련한 《녀맹》호포를 인민군대에 증정하는 모임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강위력한 우리 식의 국방공업을 창설하고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호포는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따라 꿋꿋이 이어가려는 우리 녀성들의 억척같은 신념의 표시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녀성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호포 증정서가 인민무력성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강서구역녀맹위원장 김찬경,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녀맹위원회 녀맹원 옥순희는 토론에서 모든 녀맹원들이 백두의 원군정신, 1950년대 녀성들의 원군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토론한 조선인민군 사관 고성림은 온 나라 녀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인민군군인들이 백두산혁명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혁명정신과 신념도, 계급의식과 도덕풍모도, 인생관과 일본새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그대로 닮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현대적인 메기공장건설 적극 추진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메기공장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1단계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운물원천이 있는 린산군 대촌리에 건설되는 메기공장의 총면적은 1만여㎡, 건축면적은 1 500여㎡, 양어못면적은 310㎡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온천을 비롯한 더운물원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메기기르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온 나라 곳곳에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더 많이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메기공장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전투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린산군 일군들이 올해중으로 1단계건설을 끝내고 메기생산을 시작할 높은 목표밑에 자재보장과 로력조직을 짜고드는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리종일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침입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건설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고 모든 초급지휘성원들이 자재보장대책과 로력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도록 하고있다.

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기본건설을 맡고있는 린산군도시건설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의 첫삽을 박은 날부터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현장지휘부와의 밀접한 련계밑에 일정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려가지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고있다.

린산군의 건설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매일 계획을 110%이상씩 해제낀 기세로 200일전투에서도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건설속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2만여㎡의 굴착공사와 양어못, 온실식양어장의 트라스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도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에서는 1단계건설이 끝나면 메기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올해중으로 1단계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특파기자

첨단의학과학기술개척의 앞장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교원들

얼마전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하나의 감동적인 사실에 대해 알게 되였다.

십여년전 뜻하지 않은 일로 눈을 상한 후 그 후과로 오래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대동군의 어느 한 학교의 교원인 최정국동무를 훌륭히 완쾌시킨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최정국동무를 처음 만났을 때 변성남동무를 비롯한 치과의학부 얼굴성형외과학강좌의 교원들은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도그럴것이 수십년을 의학과학연구사업에 바쳐온 이들도 이런 환자는 처음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이들의 가슴을 더더욱 파고든것은 병상태보다도 교단을 절대로 떠날수 없다고 절절히 토로하는 평범한 교육자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도 발휘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위재를 하던 과정에 우리는 변성남동무를 비롯한 이곳 강좌의 교원들과 박사원생 리철식동무가 성형외과부문에서 하나의 전진으로 되는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연구사업도 심화시켜나가고있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안면신경손상성마비에 대한 새로운 수술방법이였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안면신경이 손상당하여 생기는 안면신경손상성마비는 얼굴의 기능, 형태적장애와 변형을 동반하게 되며 사람들에게 정신적고통과 심리적장애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안면신경손상성마비에 대한 치료에서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특별히 중요하다. 수술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하여도 정상회복이 힘들게 되며 더우기는 영구성마비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가 있다고 확증되면 즉시 안면신경손상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치과의학부 얼굴성형외과학강좌의 교원들은 미세외과적기술의 발전과 안면신경손상의 치료방법에 대한 최신의 학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과정에 안면신경손상성마비에 대한 치료에서 또 한걸음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들은 피타는 노력과 열정을 바쳐 안면신경단단문합술에 성공한 이후 신경이식과 이동, 유리근육이식과 근육이동, 교차안면신경이식 등 미세외과적방법에 의한 수술방법을 림상실천에 도입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보건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높은 의학과학기술을 소유할 때만이 인간사랑의 뜨거운 정성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있는 이런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우리의 인민적보건제도가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푸른 숲에 비낀 애국의 마음

‖ 서흥군산림경영소 로동자 리형남동무의 가정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흥군 화봉리에 가면 창성이 깔나무, 잣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100여정보의 울창한 산림을 볼수 있다. 이 산림에는 리형남동무와 그의 가정이 푸른 숲에 바친 애국의 마음이 소중히 비끼여있다.

리형남동무의 가정에서 서흥군 화봉지구의 산림을 가꾸기 시작한것은 할아버지대부터였다. 어느해인가 뜻밖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리형남동무의 할아버지는 짬짬이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이 외진 산에도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선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그들의 넋을 이어 이 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 당부를 새겨안은 리형남동무의 아버지도 울창한 산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당부대로 리형남동무가 상급학교추천도 마다하고 남들이 주저하는 산림초소에 삶의 좌표를 정한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였다. 인적드문 외진 산골에서 높고낮은 산들을 오르내리며 나무들을 심고 가꾼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때로는 너무 힘에 부쳐 주저앉고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리형남동무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보금이 일도록 늘 손에서 놓지 않고 나무심기정형을 써놓았던 《산림수첩》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며 억척스럽게 이겨내군 하였다.

푸른 숲, 그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념원이였고 애국의 넋이였다.

하기에 그는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길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어느날 산림을 돌아보던 리형남동무는 산에 잡관목만 많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나무들은 적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필요없는 잡관목들을 정리하고 잣나무림을 조성할 결심을 굳힌 리형남동무는 안해 박영심동무와 토론하고 크지 않은 집터밑에 잣나무모를 심었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해빛이 잘 드는 곳에 숲사이나무모밭을 조성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애쓴 보람이 있어 산중턱에 500여평의 숲사이나무모밭이 새로 조성되였다.

수백리 떨어진 이웃군에서 구해온 많은 잣나무모들을 나무모밭에 심은 리형남동무는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밤낮도록 책을 놓을줄 몰랐고 나무의 사활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 면길을 주저없이 떠나군 하였다.

그렇게 줄줄이 자래온 잣나무모들을 떠서 산에 심을 때마다 리형남동무의 가슴은 흥분으로 세차게 설레이군 하였다.

봄내여름내 애써 헌신한 보람이 있어 주변의 산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갖가지 나무들이 빽 들어찬 울창한 산림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무성한 숲은 리형남동무와 그의 가정의 기쁨이였고 긍지였다.

그럴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정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는 해마다 양묘장에서 키운 황목련, 전나무를 비롯한 수백그루의 나무모들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상해산언덕에 많은 나무모들을 보내주었다.

산림면적을 더 늘일 목표밑에 양묘장에서 많은 나무모들을 자래우며 아글타글 애쓰는 리형남동무의 삶은 이렇게 펼치고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국을 위해 대를 이어 바치는 헌신이고 열정이며 량심이라고.

특파기자 김천일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고려청자기를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제20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제20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선체육대학, 체육과학원, 국가과학원, 각지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를 비롯하여 체육부문과 교육, 과학기술부문의 단위들,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놓은 프로그람, 측정기재, 체육기자재, 도서 및 론문 등 1 40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그가운데는 종목별교수 및 훈련지원, 경기분석프로그람들과 모의훈련체계들, 전자속도측정장치, 송구점위치측정기, 수자식목표판과 활쏘기종합훈련기재,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내놓은 각종 기재들 등이 들어있다.

개막식이 8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리충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김장산 축구련맹 제1부위원장, 체육부문 일군들, 출품단위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종무체육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체육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교환하고 현실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인디아에 갔던 국가비상재해위원회대표단 귀국

강일성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비상재해위원회대표단이 인디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재해위험감소에 관한 아시아상급회의에 참가하고 8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세환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스민다르 카스루리아 주조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사랑과 존경속에 사는 참된 복무자

라선시 라진지구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김영희동무

라선시 라진지구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 김영희동무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인민들을 위하여 자기의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함경북도 선봉군안전부(당시) 아래단위에서 근무하다가 슬직한 남편의 뒤를 이어 김영희동무가 인민보안원이 된지도 어언 18년이 되여온다.

이 나날 그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었으며 부모없은 청년들과 생활경위가 복잡한 청년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그들이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얼마전 우리는 김영희동무를 만났다.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것은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응당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응당한 본분.

소박한 대답속에 당의 높은 뜻을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내이려는 불타는 충정의 마음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이 깃들어있었다.

김영희동무에게는 친자식들보다 더 뜨거운 정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관내의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 주민들을 위해 어느 하루도 마음쓰지 않은 날이 없었다.

새다른 음식이 생기면 제일먼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찾아가고 가정들에서 옥동자가 태여나면 남먼저 찾아가 축하해주고 친자식을 위해 마련해두었던 결혼례장감도 부모잃은 청년들에게 서슴없이 안겨주고…

지난 6월 어느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김영희동무는 전쟁로병인 전형도로인이 전쟁시기에 입은 상처가 도져 앓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설상가상으로 아바이를 돌보던 그의 안해도 위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였다.

이날 근무를 마친 그는 바쁘게 사무실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가 아니라 경흥군으로 향하였다. 거기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가면 곰열과 산꿀을 구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였다.

다음날 저녁 김영희동무는 땀을 철철 흘리며 전형도로인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가 가져온 곰열과 산꿀을 본 로인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말하였다.

《아니, 이 늙은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몇해전 손자가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에는 그에게 전쟁로병의 손자답게 애국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 선군시대의 훌륭한 영웅이 되여 돌아오길 바라는 당부의 전지와 함께 학습장, 수첩, 목탈개, 원주필을 안겨준 그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한 약재까지 한가득 안고온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고 김영희동무가 100여리나 되는 길을 걸었다는것도, 경흥군의 산골마을늙은이들이 전쟁로병을 위하는 그의 지성에 감동되여 오래동안 보관해두었던 곰열과 산꿀을 내놓았다는것도 알수 없었다.

큰불피해로 선봉지구 송평동에서 살고있는 한 특류영예군인의 가정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을 때에도 김영희동무는 기름, 불고기를 비롯하여 많은 물자들을 안고 그들을 찾아갔다.

진정 김영희동무는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에게 있어서 친딸이였고 무모잃은 청년들과 생활경위가 복잡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친어머니였다.

어느해인가 김영희동무는 딸과 군사복무를 함께 한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살고있는 제대군인처녀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 외롭게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날 저녁 그는 딸과 마주앉았다.

《송이야, 우리 그 처녀를 데려다 함께 사는게 어떠냐.》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며 진정을 다 쏟아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딸이였다. 이렇게 되여 박정실동무는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수천리 떨어진 라선시에서 살게 되였으며 얼마후에는 김영희동무와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게 되였다.

결혼식날 신랑, 신부에게 보내온 례장감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이 김영희동무가 딸의 새살림을 위해 준비해두었던것이라는것을 박정실동무도 모르고있었다. 력 후에야 그 사연을 알게 된 박정실동무는 김영희동무의 품에 와락 안기며 소리쳐불렀다.

《어머니!》

김영희동무는 라선철도국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지난 시기 과오를 범한것으로 하여 일생을 약속한 처녀의 부모가 만나주지조차 않아 고민할 때에도 처녀의 부모를 어려차례 찾아가 꾸준히 설복하여 가정을 이룰수 있게 해주었다.

대학추천을 받은 제대군인청년이 가정사정으로 대학공부를 주저하자 그가 대학에 가도록 이끌어주었고 지난 2월에는 그의 부모를 대신하여 례장감을 마련해가지고 약혼식에 찾아가 한가정의 행복을 축하해주었다.

김영희동무는 이렇게 10여명의 무모잃은 청년들과 생활경위가 복잡한 청년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그들의 마음속고충을 풀어주어 이들이 안착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김영희동무의 사랑과 진정은 끝이 없습니다. 저 약함도 김영희동무의 발기에 의해 만들어놓은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우리와 만난 라진지구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김승진동무가 약함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자기 단위에 일을 보러 오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헤아려 구급약함까지 갖추어놓은 김영희동무의 소행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그것은 오직 관내주민들을 자기의 친부모,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닌 사람만이 생각해낼수 있는것이였다.

라진지구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은 너도나도 김영희동무의 뒤를 따랐다. 누구나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기 위해 애썼다.

관내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실습실을 새로 꾸려준것을 비롯하여 인민보안원들속에서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발휘되고있다.

참으로 김영희동무가 관내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인민들을 위해 기울인 사랑과 정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다.

주민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가.

김영희동무는 늘 이런 생각뿐이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사랑이 끝이 없듯이 어머니당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해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김영희동무에게 어찌 만족이 있을수 있으랴.

특파기자 리은남

반총련망동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강화조치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헐뜯고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고 비린청을 돋구면서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더한층 강화할 기도를 드러내놓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제재봉쇄나발을 탈방에 개 짖는 소리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지금껏 보아온 정치난쟁이들의 가련한 추태에 놀랄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소동이 우리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는데 있다.

지금 일본당국은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제입국금지대상의 확대》니, 《송금제한》이니, 《3국을 경유한 대조선무역차단》이니 하는 독자적인 제재항목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한편 올해초부터 수많은 무장경찰들과 장갑차들까지 내몰아 총련의 여러 조직들과 학교들을 강제수색하고 무고한 재일동포들을 폭행, 체포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들을 감행해온 경찰청과 공안조사청 등 일본의 파쑈폭압기관들은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진드기처럼 집요하게 탄압의 마수를 뻗치면서 감시, 미행, 매수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문부과학성나부랭이들은 총련학교가 있는 지방자치체들에 조선학교보조금지불에 대한 재고려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하달하고 그 집행을 조사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총련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추동과 비호조장밑에 우익깡패들과 어중이떠중이들도 매일과 같이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무소들과 개별적가정들에 살인협박전화를 걸고 방송차까지 몰고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비방중상하는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나중에는 우리 동포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다 못해 그들의 신성한 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깡패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사회적보호의 대상으로 되여야 할 학교와 학생들이 테로와 협박의 주요목표로 되고있는 이 하나의 사실만가지고서도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좀스럽고 악착한자들인가 하는것을 알기에는 충분하다. 보다싶이 재일동포들이 숨쉬고 살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일본의 정치불망나니들의 망동은 한계를 넘어서고있다.

폭압기관들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강제수색, 총련일군들의 출입국권리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행위, 총련기관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테로, 협박, 폭행 등 나날이 횡포해지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소동은 군국주의가 부활되고 민족배타주의가 활개치며 인권유린이 보편화되여있는 깡패국가 일본의 진면모를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하여 감행하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 공화국이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자 악에 받친 일본반동들은 《법치》와 《인권》의 허울마저 다 벗어던지고 총련에 대한 국가적테로를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는 식으로 앙갚음을 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속통이 좁고 못돼먹은 섬나라족속들만이 할수 있는 비렬한 행위라고밖에 말리 말할수 없다.

재일조선인들은 다른 외국거류민들과는 달리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역을 치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로서 응당 일본의 사회와 배상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며 총련은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무어진 조직이다.

총련이 나오게 된 력사적경위로 보나 일본이 조선민족앞에 지은 죄로 보나 일본당국은 마땅히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서의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난날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온갖 민족적차별을 가하고 학대를 일삼는것은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력사판에 불젖은 일본반동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천만년을 두고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과거에 대한 죄의식은 꼬물만치도 없이 반공화국, 반총련란압에 악착스럽게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민족의 백년숙적 일본반동들에 대한 무지비한 보복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하기는커녕 범죄의 력사를 극구 미화분식하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일본반동들의 도발행위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절대로 허용묵과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민족배타주의와 민족말살정책이 살판치는 일본의 험악한 정치풍토속에서도 자기의 조직과 존엄, 애국의 신념을 꿋꿋이 고수해오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자기의 위용을 남김없이 시위하고있는 궁지높은 주체의 조국의 보호속에 있는 총련조직을 허물어버리겠다는것은 오산중의 오산, 망상중의 망상이다. 일본반동들은 력대로 저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반총련적대시책동이 실패만을 거듭하고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만을 남기였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앞장선 대가로 일본의 군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꾀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는 자살행위이다.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보위하고 우리 겨레의 운명과 생존권을 우롱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늦게나마 저들의 실책을 깨닫고 개심하지 않는다면 대대손손 조선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워온 그 대가로 종국적멸망의 시각을 맞게 될것이라는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허 영 민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친일역적행위

얼마전 박근혜패당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론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도꾜에 찾아가 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지금 피뢰들은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에 작성되였던 합의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려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정보교환의 분야를 잠수함의 움직임을 비롯한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면서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를 《더는 미룰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저들의 친일역적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있다.

피뢰집권세력이 벌려놓고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놀음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백년숙적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에 적극 가담해나서는 천추에 용납 못할 사대매국적범죄행위이다.

일본과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결탁시켜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을것을 꿈하고있는 미국은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두 주구들을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위한 군사정보교류에로 적극 떠밀고있다. 이것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술책이다.

날로 더욱 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질겁한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광고하며 북침을 위한 3각군사동맹구축을 본격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의 군사정보교류실현을 운운하며 출개들을 제 소굴로 불러들여 벌려놓은 북침전쟁모의판과 3자사이에 련이어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바로 이러한 속에 남조선피뢰들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떠벌이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놀음을 재개하기로 한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3각군사동맹조작을 더욱 다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남조선피뢰들이 벌려놓고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놀음은 가뜩이나 침예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북침핵전쟁의 검은구름을 짙게 몰아오게 될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과 주변나라들속에서는 피뢰당국이 일본과 함께 벌리고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놀음이 3각군사동맹조작을 위한것으로서 남조선을 미국의 종국전 제용도구로 완전히 전락시키고 일본《자위대》가 조선반도에 진출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미국의 부추김과 배후조종밑에 일본반동들과 결탁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적극 나서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 각계가 일본반동들의 재침야욕을 부채질하는 피뢰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그에 견결히 항거해나서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피뢰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팔걷고나서는데는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흉심도 깔려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에서는 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박근혜역도의 특대형부정추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피뢰집권자의 사퇴와 《새누리당》해체 등을 요구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반역패당을 기어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낼 의지를 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거리에 떨쳐나와 항거의 초불을 밝히고있다.

파멸의 나락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박근혜패당은 당황망조한 나머지 남조선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로 되고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다시금 거론함으로써 여론의 초점을 딴데로 돌리고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헤여나려고 발악하고있다.

남조선의 야당들도 피뢰당국이 추진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 불순한 정치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해나서고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결코 무사할수 없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천하의 역적무리에게 차례질것이란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리 성 호

남조선의 여야당의원들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뗄것을 주장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야당인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이 6일 청와대앞에서 박근혜가 국정에서 손을 뗄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는 47명의 이름으로 된 성명이 랑독되였다.

성명은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롱락에 성난 민심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대미문의 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마비상태이고 광장에서 퇴진요구가 비발치고 있지만 박근혜가 이 모든것을 외면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여야와의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총리》를 지명한것은 현 사태에 대한 박근혜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가를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최근 박근혜의 태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통령》권한을 내놓지 않겠다는 고집과 독선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민중과 《국회》를 설득하고 이끌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도덕적권위마저 땅바닥에 떨어진데다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여 통치권을 행사할수 없는것만큼 이런 상태를 1년이상 지속한다는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력대 최악의 지지률과 거리에서 머저나오는 민심을 계속 외면한다면 제2의 6월항쟁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고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다음날 국민의 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이미 민중의 신뢰를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것은 불가능하며 그가 《대통령》자리에서 퇴진하는것만이 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이 더 큰 위기에 빠지도록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박근혜가 이제는 그만 물러나라고 요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4일과 5일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인터네트홈페지에 박근혜와 당대표가 계속 버틸 경우 4.19때의 리승만처럼 될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을 올렸다.

《싸드》배치놀음에 깔린 재집권흉계

남조선에서 《싸드》배치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피뢰들의 비밀거래의 흑막이 드러나 각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폭로된바에 의하면 보수《정권》연장에 환장해날뛰는 박근혜패당은 미국상전과 더러운 흥정판을 벌려놓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적극 도와줄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싸드》의 남조선배치요구를 덥석 받아물었다.

미국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관건적고리로 여기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런 속에 박근혜패당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있은 미국과의 《넌레안보협의회》에서 상전의 《싸드》배치요구를 받아들일 립장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음모가 폭로되고 그에 대한 내외의 반대여론이 급격히 고조되자 불안을 느낀 미국은 피뢰당국에 《싸드》배치를 시급히 결정할것을 강박해나섰다.

한편 교활하게도 지난 4월에 있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기가 꺾인 피뢰집권세력에게 재집권담보라는 미끼를 던지였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미국무성 부장관, 미국가정보국 장관 등은 련일 서울에 날아들어 박근혜패당과 이마를 맞대고 다음해의 《대통령》선거에서 미국이 보수패당의 재집권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지난 5월 미공화당 상원의원대표단이 남조선에 날아든 목적도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누리당》을 확고하게 밀어줄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미국상전의 이런 적극적인 뒤받침에 감지덕지한 박근혜역도는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과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배치요구를 덥석 받아물었다. 결국 지난 7월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공식 결정되게 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싸드》의 남조선배치결정은 상전을 등에 업고 재집권기도를 실현하려는 박근혜패당과 피뢰들을 하수인으로 써먹으며 북침야망과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북위협대비》를 위한것이라는 엉터리같은 나발을 불어대며 저들의 반역적망동을 정당화해나섰다. 그야말로 뻔뻔스러운것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이 반역《정권》의 연장을 꾀하며 《싸드》배치놀음을 강행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불아오고있는것은 참으로 분격할 노릇이다.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말든 미국의 힘을 빌어 재집권음모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것이 피뢰보수패당의 속타산이다. 이런 추악한 역적배들을 과연 용서할수 있겠는가.

워낙 미국상전의 지지와 뒤받침이 없으면 한시도 권력을 유지할수 없는 천하의 매국노들이 바로 피뢰보수패당이다. 그래서 더러운 사대매국노라고 지탄받으면서도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달라붙어 친미굴종행위를 끊임없이 일삼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박근혜역적패당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계속 고조되고있는 《싸드》배치반대투쟁은 극악무도한 친미역적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결탁하여 매국과 반역을 일삼는 박근혜역적패당이 력사의 심판대에 오를 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남조선에서 박근혜퇴진운동 계속 전개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남조선 각계의 투쟁이 그치지 않고있다.

6일 민주로총소속 전국민주택시로조련맹 광주본부, 광주지역택시로조는 광주에서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를 등에 업은 최순실의 국정롱락으로 《정부》기능이 마비되여 모두가 《대통령》을 믿지 않게 되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박근혜의 능력으로는 국정을 운영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하면서 《유신》철권통치의 후예인 박근혜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택시들에 붙이고 경적시위를 벌렸다.

같은 날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는 대전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위행진을 하였다.

부산과 경기도 용인, 경상북도 경주 등지에서도 이날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들이 일제히 진행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박근혜가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7일에는 서울의 각계층 시민들이 초불집회를 가지고 찬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박근혜 퇴진》, 《청와대로 가 세상을 바꾸자.》,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같은 시각 카톨릭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광주에서 시국미사를 가진 후 《박근혜처벌》,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웨치며 초불행진을 벌렸다.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순실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고 웨쳤다.

각계층의 시국선언운동이 지금도 이어지고있다.

7일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과 《싸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와 대전, 광주, 부산, 경상북도, 경기도 평택,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싸드》배치반대투쟁단체들,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들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롱락행위가 개성공업지구폐쇄, 《통일대박》론, 성노예문제 《합의》, 미국제무기도입, 《싸드》배치결정 등 중대사안들에도 개입되여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가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고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기가 아니며 민중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라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근 보수세력들속에서 새 내각구성을 놓고 외교, 안보분야를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있는것은 박근혜가 퇴임전에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강행하고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리행하도록 요구하는것일수 있다고 까밝혔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과 《싸드》배치의 강행 등으로 위협이 극도에 이른 오늘의 남조선의 운명을 생각해서라도 박근혜가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경상남도지역에서는 2 340여명의 학부모들이 도청앞에서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국선언운동을 벌렸으며 인제대학교의 교수, 연구사들과 목사들도 각각 시국선언운동들을 통해 박근혜세력이 계속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중의 분노에 찬 심판을 더이상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6월인민항쟁당시 서울대학교에 다니며 투쟁에 참가하였던 졸업생 540여명은 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국정롱락이 가능하게 하였던 사회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제2의 추문사건이 언제든지 반복된다고 하면서 더이상 긴말이 필요없다, 박근혜가 퇴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중의 명령이라고 강조하였다.

6일 전지역의 5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망라한 전국청소년정치외교련합은 서울의 여의도에서 전지역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광주의 10개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날 20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웃물이 맑지 않은데 어찌 학생들이 맑고 깨끗하게 성장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꼭두각시《대통령》은 필요없으니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앞서 5일에는 전라남도 광양의 청소년들이 학교별로 시국선언문들을 발표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속에서 동맹휴학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공회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들에서 동맹휴학을 제안하는 대자보들이 련이어 나붙거나 참가를 호소하는 선전활동들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3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론의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인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은 단체홈페지에 대학별로 동맹휴학을 벌려 대학생들의 련대를 보여주자고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전국대학생시국회의에 속한 각 대학 총학생회들도 동맹휴학을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계속 고조되는 남조선 각계층의 항의기운때문에 피뢰패당이 저들의 몸값을 올리려고 계획하였던 행사놀음들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거나 축소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높아가고있는 반박근혜기운을 두고 이전 《국회》의장은 박근혜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4.19봉기, 6월항쟁때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박근혜의 2선후퇴 등 본질적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지대학교 교수들도 민중의 분노의 내용과 참가폭을 보면 과거보다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직업과 계층,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분노하고있고 과거에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시하지 않던 사람들마저 퇴진요구에 동의하고있다, 민중이 탄핵요구까지 간것은 4.19때와 류사하다, 박근혜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언명하였다.

성공회대학교의 한 교수는 시민들의 분노수준과 참가자수를 보면 대단히 놀라운 상황이며 박근혜가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절세위인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당과 국가가 친혈육이 되여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의 아이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우고있는 눈부신 현실을 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고매한 인민적풍모에 대해 절감하고 경탄하고 있다.

로씨야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김정은령도자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은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두텁한 인민관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시다. 인민사랑은 위인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으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새롭게 건설된 창조물을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신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면 병실바닥도 짚어보시며 온도도 가늠해보시고 군인들이 리용하는 기초식품의 맛까지 보아주신다. 공장과 기업소, 유치원과 살림집들을 찾으시면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세심히 보살펴주신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령도자의 손길아래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그렇다. 어디를 보나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구석구석 다 가닿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새집들이경사가 어제런듯 싶은데 또다시 현대적인 려명거리가 일떠서고있다. 려명거리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있던 때에 조국의 북변땅이 횡포한 돌풍과 무더기비로 예상치 않게 대재난을 당하자 모든 력량을 피해복구전투에로 불러일으켜 전화위복의 새 기적을 수놓아가고있는것이 우리 나라의 자랑찬 현실이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우리 어찌 오늘의 자랑찬 현실과 누리는 행복에 대해 말할수 있으랴.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의 세월는 끝이 없다.

어느해 봄날에 봄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내가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데 대하여 걱정하는데 일없다고,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인민의 아들딸답게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워 기어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이 잘살고 모든것이 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앞장에서 꽃피워가고계신다.

하기에 국제사회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변함없이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말레이시아의 《광명일보》는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김정은각하의 구상에 따라 세워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질 땟고있다고 하면서 《만리마시대가 안아온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의 귀중한 결실이다.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아름다운 사회주의거리와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인민을 위한 김정은각하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수많은 외국인들도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한껏 터치고있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선전은 진실성도 근거도 없는 거짓선전이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정법한 근로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대중봉사기지들이 계속 일떠서고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세금없는 나라,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을 두고 인류의 리상사회라고 찬양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 땅에 펼쳐지는 전변의 새 모습, 사회주의문명의 황홀한 현실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바쳐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결정체,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이제 머지않아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 애국의지에 떠받들려 온 세상이 부러워할 사회주의문명국의 황홀한 현실을, 그속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끝없이 행복한 모습을.

본사기자 김수진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외국인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숭고한 인민관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단장 위또르 보가또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조선의 북부지역에서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재해지역이 넓고 피해규모가 엄청나기때문에 복구사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지출되여야 하므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쉽게 결심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매우 짧은것이였다.

조선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국가의 중요대상건설도 중지하고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중대조치를 취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이 없이는 내릴수 없는 대용단이다.

조선방문기간 나는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복구전선에 총동원, 총집중되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가슴뜨거운 현실을 목격하며 정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역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혼연일체의 장엄한 화폭을 펼쳐놓은것이다.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만복을 다 받아안은 행운아들이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 해도 두려움을 모르고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대표단 단원 보갈레 아바이네호 아스마레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이 누릴 최상의 문명을 위해 유희기재까지 직접 리용하시면서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가지도자들은 많고많아도 그이와 같이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사랑하시며 모든것을 바쳐가시는분을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은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로씨야소년야영단 단장 이리나 나우모바는 방문기간에 받은 감동이 참으로 컸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의 그 어디를 가나 모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뿐이다.

릉라곱등어관, 릉라인민유원지,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비롯하여 세계적수준에서 꾸려진 봉사시설들에서 정법한 근로자들이 마음껏 문명을 향유하고있다.

이러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령도자의 세심한 지도속에 일떠섰다고 하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

완공을 앞둔 대상들에 몸소 나오시여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구석구석 보살펴주신 김정은각하와 같으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체류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이의 인민중시정치와 숭고한 인민사랑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랭전이 부활되였다

로씨야와 미국주도의 나토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있다. 쌍방사이의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군사적대치상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나토가 로씨야령토에서 진행된 전술미싸일종합체이동전개와 같은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면서 반로씨야군사적깜빠니야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것이 그 계기로 되였다.

얼마전 로씨야가 핵탄두탑재가 가능한 전술미싸일종합체《이스깐데르-M》을 화물선으로 깔리닌그라드에 이동전개한다는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였다. 로씨야군부는 자국이 위한 조치는 철두철미 령토방위를 목적으로 한 전투준비완성을 위한것으로서 너무나도 일상적인것이라고 명백히 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시비질해나섰다. 로씨야의 전술미싸일종합체가 이동할 때부터 위성을 통하여 추적감시하면서 주변나라들에 《위협》으로 될것이라느니, 로씨야가 발뜨해연안국들은 물론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을 핵으로 타격하려 한다느니 뭐니 하는 어마어마한 여론을 내돌리며 로씨야공포증을 조성하였다. 그리고는 나토성원국들이 로씨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이 극성스레 외워대고있는 로씨야 《위협》설은 별로 놀라운것도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 항시적으로 추구해오고있는 대로씨야전략의 산물이다. 내용을 보면 나토의 확대를 통해 동유럽나라들을 저들의 세력권안에 끌어넣어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며 나아가서 군사적힘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제압한다는것이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동유럽나라들이 로씨아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자면 나토에 들어와야 한다고 선전하였다.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들과 미군병력을 들이밀면서 로씨야와 군사적으로 대치시켜놓았다. 미국은 이런 방법으로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하여왔다.

이번에도 다를바 없다.

로씨야를 《도발자》, 《침략자》로 몰아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다그치기 위한 구실을 얻자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이다. 그것은 이미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문제는 이것이 지역정세를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미국주도의 나토는 로씨야의 전술미싸일종합체이동전개가 진행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국방상회의를 열고 로씨야의 《위협》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이 나라 국경지역에 랭전종식후 최대규모의 무력을 집결시키기로 하였다. 미국은 뽈스까에 땅크와 포,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토성원국들도 동유럽나라들에 무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해초부터 나토는 4개 대대를 이 지역에 추가로 투입하고 4만명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나토무력은 로씨야의 턱밑으로 더 바싹 접근하고있다. 이것은 로씨야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내비친것이나 같다.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지역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미국의 반로씨야군사적소동에 힘으로 강하게 대응해나가려 하고있다. 나라의 서부지역에 무력을 집결시키고있다. 나토의 문앞이라고 할수 있는 깔리닌그라드에 미사일들을 전개하고 발트해에 함선들을 파견하여 군사활동을 벌리고있다.

로씨야와 미국은 지금 정면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계선으로 한걸음한걸음 마주 육박하고있다. 언제 실전으로 번져지겠는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명백한것은 힘의 우위에 기초하고있는 미국의 대로씨야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각에 쌍방사이에 엄중한 군사적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면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는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유럽나라들은 어차피 로씨야와 미국주도의 나토사이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이미 로씨야는 동유럽나라들이 자기 령토에 나토무력을 끌어들이는것은 스스로가 자국의 타격목표로 되는 길을 선택하는것과 같다고 경고한 상태이다.

유럽땅에 랭전이 부활되였다. 2차례의 세계대전의 발원지인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계대전의 문어구에 들어서고있다. 세계는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유럽에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번져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들을 군사적힘으로 누르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날뛰는 미국때문이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정화의 과괴자이다.

미국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몰아온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리학남

미국은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0월 2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미국의 〈제재결의〉의 범죄적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의 핵능력고도화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운운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약 핵시험이나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지금까지 핵시험과 위성발사를 수없이 진행하고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정기적으로 벌려놓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부터 제재대상으로 회부되여야 할것이다.

조선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이며 위성발사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조선에 대한 《제재결의》들은 인도주의적원칙을 전면부정하고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앗아내는 잔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의 산물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는 그 내용과 지속성, 비렬성과 범죄성에 있어서 파쑈히틀러를 훨씬 릉가하는 전대미문의 주권침해행위, 인권말살행위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제재책동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본활동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의 강도적론리를 《세계유일기준》으로 내려먹이는 불법무법의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고도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그뜬히 갖춘 선군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제재소동이 아니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된다는것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서방의 선거는 추문폭로전, 비방중상전이라고 비난

로씨야대통령 블라지미르 뿌찐이 10월 27일 《왈다이》국제토론구락부에서 연설하면서 서방나라들에서의 선거전을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에서 선거는 변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무엇을 표집었다느니, 누가 누구와 잤다느니 하는 추문폭로전, 비방중상전으로 되고있다고 아유조소하였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한계를 벗어난것이다, 별의별 후보자들이 다 출연하는 텔레비존방송들을 보느라면 그들을 한형타로 찍어내였다는 느낌이 든다, 차이점이란 매우 미미하며 실지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서방의 선거과정에서 정치는 무력한것으로 되였으며 정민들은 통치계급을 더는 믿지 않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레로반대투쟁

마로끄에서 최근 레로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3일 이 나라 정부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레로소탕작전들을 벌려 16개의 레로조직을 적발숙청하였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210명의 레로혐의자가 체포되였다 한다.

미국대통령선거는 권력가들의 란투극

중국방송이 비평

중국중앙인민방송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통령선거를 권력가들의 란투극으로 비평하였다.

방송은 사회적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자들이 뒤에서 정부를 조종하며 국가정책이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대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무력한 상태에 있는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이상 미국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자체의 합법칙적인 위기에 빠져들었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현 미국경제와 정치집권세력에 대해 불만을 품고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변하려면 미국의 꿈도 이미 퇴색되였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우려하고있을뿐아니라 운명전환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고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선거권소유자들이 정치를 좌우지하고 《경기》규칙을 바꾸면서 저들의 더 큰 리익을 추구하는 불공평한 현상을 명하니 바라볼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사회경제체제는 오직 소수의 특권계층만이 리익을 얻을수 있게 되여있으며 따라서 가난뱅이와 부자간의 차이도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정부측이 조사한데 의하면 지난 시기 대통령선거경쟁에 든 자금은 20억US$에 달하였다. 하지만 올해 미국대통령선거에 든 자금은 도합 60억US$를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푼한푼의 선거자금은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선거에 가장 많이 출자한 사람들중에는 미국의 무기판매업자와 원유거두, 정보기술회사와 금융업계관계자들이 들어있다. 그들은 모두 정부가 자기들을 관리통제하거나 세금을 징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자들도 국회선거에 투자할수 있다. 상원의원선거에서 통과된 사람들가운데서 94%는 가장 많이 출자한자들인데 상원에서 이러한 비률은 82%에 달한다. 때문에 상원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하려면 적어도 200만US$를 지출해야 하며 재선하려면 평균 1 000만US$가 필요하다.

방송은 미국이 인종주의와 빈곤, 범죄, 마약 등 사회내부모순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내고있으며 군사와 정보 등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퍼붓기 위해 적수를 꾸며내는 등 미련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폭로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도》

에짚트신문의 글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 10월 28일부가 《조선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1980년 10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선을 통일할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머지않아 빛나는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분노와 규탄의 대상으로 된 특등인권범죄자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저지르고있는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제적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는 궁지에 몰린 테로단체들과 이스라엘정부를 비호하고 정세불안정을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폭로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테로와 극단주의를 조장시키는 비렬한 방법으로 수리아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을 와해시키려 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한 외교석상에서 《반테로전》의 명목으로 서방이 형성한 군사적련합이 위선이라고 까밝히고 얼핏 보기에는 아랍세계가 테로의 발원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테로의 장본인은 미국과 서방이라고 단죄하였다.

수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로씨야, 파키스탄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미국이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테로를 조장시키고 각종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벌리고있는 《반테로전》은 실제상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테로세력소탕을 위한것이 아니다.

패권주의에 환장한 미국은 위협한 테로세력들과 그로 인해 조성되는 파국적혼란을 리용하여 수리아를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전복할것을 획책하고있다. 이를 위해 테로분자들을 비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음으로양으로 계속해왔다.

수리아사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지난해 《이슬람교국가》의 기발을 단 테로분자들의 자동차행렬을 의도적으로 타격하지 않았다. 지금도 테로세력들을 비호하고있으며 의도적으로 수리아정부군의 진지에 맹폭격을 가하는 등 테로분자들을 지원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인권옹호》간판을 테로세력과 싸우는 수리아정부와 로씨야의 발목을 붙잡고 테로분자들에 대한 지원을 합법화하는데 악용하고있다.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수리아에서의 로씨야의 군사행동은 반테로전이 아니라 만행이며 로씨야와 수리아는 평화를 추구할 대신 전쟁을 하고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테로분자들이 차지한 지역들에 《인도주의원조》를 주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이라크에서도 미국은 테로세력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들을 저지르고있다.

최근 미국주도의 련합군의 공습으로 이라크의 평화적주민들속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련합군은 테로분자들을 타격한다고 하면서 무려 3일간에 걸쳐 이라크의 모쑬시와 그 린접에 위치한 학교들과 기타 민간대상물들을 공습하였다. 그로 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 6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지게 되였다.

문제는 미국이 그에 대한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있으며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까지도 이번 사건을 애써 외면하면서 침묵하고있는것이다.

그를 인정하고 보도하면 《반테로전》의 진상과 인권범죄자들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습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반테로전》을 개시한 때부터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수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학교와 병원, 결혼식장과 장의행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구 폭격하였다. 미국의 야만적인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난 7월 미국가정보국이 축소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테로분자》들을 목표로 단행하였다고 하는 무인기공습과정에 숨진 민간인의 수는 64명에서 최대 116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지 민간인사망자수는 최소한 줄어 계산하여도 근 1 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언제 한번 똑똑히 사죄하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항의가 세차게 일어나면 《오폭》이니, 《실수》니 하며 국제사회를 얼려넘기려고 요술을 부리군 하였다.

오죽하면 국제대사면까지도 미국이 수리아에서의 작전시 민간인들에게 끼친 피해를 왜소화하거나 덮어버리고있다고 분개해하면서 미국주도의 련합군공격으로 사망한 민간인피해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힐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겠는가.

미국이 수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지역에서 벌려놓고있는 《반테로전》의 진짜목적은 테로소탕이 아니라 테로조장이며 반미정권숙청이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란 국권침해와 민간인살해이다.

그로 하여 중동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분쟁과 혼란이 종식되지 못하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정든 집을 잃고 정처없는 류랑의 길을 떠나고있다.

지구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미국과 같이 세계도처에서 사람잡이를 일삼으면서 횡포무도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불량배국가는 없다. 하기에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악의 제국에 대한 국제적규탄의 목소리는 그칠줄 모르고 더욱 거세차게 울려나올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경제장성목표

인도네시아가 2018년에 경제를 6%이상 장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2일 이 나라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를 종전에 비해 더 늘이고 무역을 보다 활성화시키는것이 목표실현의 중요한 방도라고 강조하였다.

야생동물보호노력

라오스에서 야생동물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10월 27일 정부는 야생동물의 비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5개년계획을 세우고 5개 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경초소들에서 보호동물의 밀매행위에 대한 단속통제를 강화하고있다.

자동차생산 증대

이란에서 올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7개월동안에 69만 1 58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6.2% 늘어난것이라 한다.

최근 이 나라 신문 《테헤란타임스》가 밝혔다.

협조

케니아와 탄자니아가 10월 31일 무역과 야생동물보호, 안전제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와 팔레스티나는 정보기술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관광업발전조치

케니아정부가 2일 관광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자연보호구들의 입장료를 낮추고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들을 더 건설하게 된다 한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자연보호구를 통한 관광업이 총관광수입의 70%를 차지하고있다.

다니엘 오르떼가 싸베드라 니까라과대통령으로 재선

니까라과에서 다니엘 오르떼가 싸베드라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6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았다고 한다.

미국의 파렴치한 주장 규탄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0월 31일 한 발언에서 자기 나라를 겨냥한 미국의 주장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군부의 한 관리가 이란이 예멘의 반정부그루빠에 미싸일을 비롯한 무기들을 제공해주고있다고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파렴치한 망발로 락인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동에 많은 무기들을 팔아먹고있으며 이로 하여 예멘에서는 미국제폭탄과 미싸일들이 메일과 같이 비오듯 날아들어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 학교와 병원, 살림집들을 사정없이 파괴하고있다고 폭로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181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